

2018년  
572돌  
한글날

# 한글로 세계상을 품다

- 2 축하
- 10 올해 한글을 빛낸 분들
- 12 한글날 기획 한글 할아버지,  
오래 오래 앉아 계세요!
- 16 다듬은 말 알아보기
- 18 맛의 말, 말의 맛
- 20 우리말 탐구
- 22 국립국어원과 함께해요
- 31 우리말 길라잡이
- 32 만화로 보는 우리말



국립국어원

572쪽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도 종 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한글로 피우는 한국 문화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오백일흔두 돌 한글날을 기념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쁩니다. 한글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을 통해 창제자, 창제 이념, 창제 원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문화유산입니다. 오늘날 한글은 정보화 시대에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문자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글의 과학성과 체계성은 국외의 석학들에게도 인정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를 타고 한국의 가요, 영화, 드라마, 문학 작품, 전통문화 등을 더 알고 싶어서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세계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반갑고 흐뭇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 내에서는 한글과 한국어가 제대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른바 외계어나 그 아류의 한글 파괴도 끊이지 않고, 언론이나 공공기관에서 로마자 약어나 외국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는 모습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도처에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만연해 우리 언어문화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한글날을 맞이해 온 백성이 날마다의 언어생활을 편안히 하기를 바랐던 세종대왕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 합니다. 문화의 근간인 언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품격을 갖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 쉬운 말로 소통하고 두루 화합하는 언어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 나가야 문화가 꽃을 피우고 나라의 품격도 높아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세종대왕의 자주 정신, 애민 정신, 실용 정신의 정수인 한글이라는 찬란한 문화유산을 갈고 다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한글날을 축하하며 아름다운 한글과 한국어를 통해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한글날에 세계가 함께하는 한글의 가치



소강춘  
국립국어원장

올해로 세종대왕께서 ‘백성이 날마다 씹에 편안케 하고자’ 우리글인 훈민정음(한글)을 널리 퍼신 지 오백일흔두 돌이 되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뒤에야 비로소 모든 백성이 쉬운 글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우리 문화가 꽃을 피우고 우리 거래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터전입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문자로서 세계의 많은 전문가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도 알맞은 효율적인 문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보화가 진전될수록 그 가치와 효용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뒤늦은 산업화에도 빠르게 성장하여 오늘날 주요 20개국 구성원이 되고, 전 세계가 경이롭게 바라보는 민주화를 이루며, 정보화 시대에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글로 온 국민이 쉽고 빠르게 정보와 지식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룬 정치·경제·문화적 발전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고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전 세계에서 늘어남에 따라, 이제 한글은 우리의 독특한 정서와 역동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한류의 핵심 요소로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어 현실은 과도한 축약어나 낱신 외래어가 공공의 영역까지 거리낌 없이 사용되며, 과도한 욕설과 혐오 표현이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언어적 갈등과 불신에 따른 소통 장애도 심각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말과 글을 주고받을 때 진정한 이해와 소통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언어생활을 되돌아 보고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 우리의 말과 글을 소중하게 물려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립국어원은 국민이 바르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통일은 남북의 거래가 서로 막힘없이 소통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인식으로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남북 언어 통합의 과제들도 차근 차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한글이 우리 문화 발전의 중심에 서고 세계인들에게도 한글의 가치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국내외의 뜻있는 분들이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은 ‘자주, 애민, 실용’의 정신을 담아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문자 생활을 못해서 고통 받고 있는 백성을 사랑하셔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의 뜻을 오늘날에 되새긴다면, 공공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쉬운 우리말 사용이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이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날을 계기로 한글 창제 정신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의 언어문화를 더욱 윤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꾸어 나갑시다.

572돌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우리가 지켜 온 한글

안녕하세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입니다.

올해로 572돌을 맞이한 한글날을 진심으로 경축합니다.

한글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언어로 유명합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를 살펴보면, 기본자를 두고 획을 더하는 가획의 방식으로 자음과 모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생김새에서 착안되었고 기본자와 소리가 유사한 자음과 모음들은 획을 더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제자 원리를 파악한다면 우리의 한글을 단 하루만에 도 익힐 수 있는 문자라고 합니다.

이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가 있었기에 우리는 세계적으로도 낮은 비문해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성 있는 우리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한국 문화의 밑바탕에도 한글이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 아래 배우기 쉽고 쓰기 쉽게 창제된 한글이 5백여 년의 시간을 넘어 이제는 한반도뿐만 아닌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세종대왕을 비롯해 한글을 지켜 온 선조들의 얼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글의 가치를 바로 인식하며,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한글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우리의 말과 글을 지켜 온 선열들이 계셨습니다.

오늘 572돌을 맞이한 한글날에 선열들의 한글 사랑,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기고, 우리의 언어문화를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꿀 것을 다짐하는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영국  
국립한글박물관장

## 한글과 함께 꾸려 나갈 문화 예술

올해는 한글날 572돌이자 세종 즉위(1418년) 600돌이 되는 해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세종은 문화, 과학, 국방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 조선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종의 업적 가운데에서 오늘날 가장 칭송받는 것은 누구나 쉽게 깨칠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하여 일반 백성이 배움과 소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당시 중국 중심의 사대주의와 다수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을 창제한 것은 나라의 지도자로서 민족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세우고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종의 애민 정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쓰인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와 소설 등 우리의 문화 예술을 누리고 있고, 우리말로 된 음악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2018년 한글날 572돌을 맞아 늘 우리 삶 속에 있기에 당연히 여기던 한글의 소중함과 문화적 가치를 깨닫고 한글에 깃들어 있는 세종과 선열들의 뜻을 다시 한번 기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개관한 국립한글박물관도 세종의 한글 창제 정신을 이어받아 한글과 관련된 각종 전시와 유물 연구 및 보존,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한글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고 그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2호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 마음껏 자랑해요, 한글!



김 미 형  
전국국어문화연구연합회장  
상명대학교 교수

올해는 세종대왕이 왕이 되신 지 600돌이 되는 해입니다. 세종은 스물두 살의 나이로 임금이 되어 32년 동안 나라와 백성을 어질게 다스리셨지요. 국방과 외교에서부터 문화와 복지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고, 당시 잡학으로 여겼던 과학과 천문, 지리, 의학, 음악 등을 크게 발전시켰으며, 특히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우리말을 글로 적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말을 글로 적는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크게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성의 말과 글이 비로소 하나가 되었으니, 글을 읽어 바른 도리를 익힐 수 있었고, 억울함을 조목조목 풀어서 쓸 수 있게 되었지요. 비로소 사람 사는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그 어떤 문자라도 이보다 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고 편해서 그런지 글자살이에 신중함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눌러쓰며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을 본 적이 있나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입니다. 소리를 자유자재로 표기할 수 있다 보니 때로는 알면서도 어문 규범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데는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투자하면서 한글 맞춤법을 배우고 익히는 일은 거추장스럽게 여기곤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한글은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문자입니다. 가장 젊지만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한글의 주인 된 우리가 세종대왕 앞에 어리석은 후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느낌을 쉽게, 바르게, 품격 있게 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정신을 오늘에 잇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며,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 함께 살아갈 한글



이 윤 실  
한국어문기자협회장

한글날 572돌을 축하합니다.

축하의 말을 열 번, 백 번 전해도 모자랄 만큼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는 어떻게 일상의 ‘말’을 ‘글’로 쓰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외국인 학자는 한글에 대해 “음, 즉 소리로 성립된 ‘말’을 어떻게 해서 ‘문자’로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면 정말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알다시피 한글은 로마자와도 다르고 일본 문자와도 다른, 배우기 쉽고 간단하지 만 합리적인 문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3,000개, 5,000개, 혹은 학자에 따라 8,000개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중 문자 체계가 있는 언어는 수백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글이 없는 언어는 말로만 존재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이 소멸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 주는 대목입니다.

요즈음은 한글을 배우려는 외국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글은 세계 여러 나라에 케이 팝을 타고 퍼지고, 한류 드라마를 타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계인은 한글을 배우러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 또한 그들을 가르치러 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도 있습니다. 이들은 한글을 배우고 쓰며 우리 문화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한글은 문화입니다. 한글이 우리 문화를 타고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또 다른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의 우리말 환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변형된 말과 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말과 한글을 쓰기 좋고 배우기 좋은 말과 글로 정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과 글은 세월을 따라 변합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요인으로 또 다른 변화의 시기를 맞은 한글이, 배우기 쉽고 모든 사람에게 한없이 따뜻하지만 강단 있고 원칙 있는 언어로 살아남았으면 합니다.

이를 이루려면 우리말을 제대로 사용하는 한국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며, 예의를 아는 언어, 자존심 있는 언어로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이는 결국 언종인 우리의 몫이 아닐까요?

572돌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 모두 축하받는 한글날

“축하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이날이 되면 받는 메시지입니다. 세종 임금의 종친도 아니고, 집현전 학사의 후손도 아닌데 ‘한글날 축하’ 인사를 받는 저는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말과 글 다루는 일을 밥벌이로 삼는 아나운서이기에, 〈우리말나들이〉 기획자로 알려졌기에 받을 수 있는 축하?

한글판보 572돌을 맞는 올해는 세종 즉위 600돌이 되는 해입니다. 세종은 저와 인연이 깊은 임금이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사는 여인의 생가가 세종이 탄생하신 곳과 무척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이 제 처의 출생지이니까요. 이씨(李氏)도 아니면서 세종 임금을 할아버지인 양 친근하게 여기며 존경하게 된 여러 까닭 가운데 ‘아내가 태어나 자란 동네’도 한몫했을 겁니다.

그리고 보니 ‘한글날 축하’ 인사는 저만 받을 게 아니군요.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이들이 한글과 세종 임금 덕분에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몸담고 있는 문화방송(MBC)은 오늘을 ‘한글날 특집’으로 꾸려 방송하려 합니다. 축하와 자축의 뜻을 담아서……. 여러분, ‘한글날을 축하합니다’.



**강재형**  
문화방송(MBC) 아나운서국 국장

## 한글로 담은 의미

우리말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습디다. 물은 물이어야 하고 불은 불이어야 합니다.

같은 입술소리인 ‘ㅁ’과 ‘ㅂ’만 바꾸면서 그저 묵묵히 흐르는 물의 맛과 줄곧 모양을 바꿔 대는 불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달과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만 다른 자음과 모음을 소리 내는 것만으로도 둥글고 포근한 달과 밤하늘 반짝이는 별의 느낌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정치인들의 말과 글 속에 있는 숨은 얘기들을 꼬집어 풀어내는 것이 제 일입니다.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의미와 느낌들이 간혹 정치권에서는 나쁘게 쓰이기도 합니다. ‘주어’가 없다는 말이 그랬고 누구나 말하는 ‘국민이 원해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풍부한 의미가 있는 우리말에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국립국어원이 여러모로 그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글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성태**  
제이티비시(JTBC) 정치부 기자



## 한글이 주는 풍성한 말의 맛

얼마 전 친정집에 갔다가 옛 책상에서 2006년에 받은 엽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볼펜으로 가지런하고 정갈하게 쓴 한글, 영어를 공부한다며 만났던 미국 친구가 남겨 준 편지였습니다. 거기엔 어여쁜 꽃 그림과 함께 '꽃봉오리'라는 단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어학당에서 우리말을 배우던 그 친구는 '꽃봉오리'라는 단어를 한 음 한 음 정확하게 발음하며 참 예쁜 단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 단어를, 한글이 주는 풍성한 말의 맛을 어떻게 영어로 바꿀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요즘은 한글 읽기의 짜릿함을 맛보고 있는 네 살 아이를 통해 한글의 과학성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통 안에 넣으면 한 글자가 되어 나오는 그 신기한 경험을 하며 아이는 퍼즐을 맞추듯 한글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한 퍼즐에서 복잡한 조합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아이의 뇌를 얼마나 흥분시키고 있을까요.

한국방송(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회에서는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살릴 수 있도록, 매달 한국어 포스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글을 배웠을 때처럼 정확하고 아름답고 적절한 우리의 말글을 전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면 우리의 말글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은 그래서, 스스로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고 한 단계 도약을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 세 진**  
한국방송(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장

## 자랑스러운 한글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글’의 572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계 학자들로부터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는 칭송을 받는 한글. 하지만 한글이 더 특별한 것은 백성을 아끼는 세종대왕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발휘된 한글은 세상 어느 문자보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수하고 따뜻한 ‘한글’이 우리의 글이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외래어와 신조어가 많이 사용되는 요즘이지만, 한글날을 계기로 우리글 한글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박 신 혜**  
배우

## 올해의 한글 발전 유공자

문화체육관광부는 572돌 한글날을 맞아

국내외에서 한글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헌신한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하고 있다.



**보관문화훈장 고(故) 김수업**  
전(前) (사)진주문화연구소 이사장

30년간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40여 편의 논문과 10여 권의 저서를 발표하였고, 국문학과 국어 교육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학문과 교육도 한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등 한글과 우리말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화관문화훈장 강봉식**  
일본 이와테 현립 대학교 교수

일본에서 1986년부터 32년간 한국어를 교육해 오면서 한국어 교육을 학문으로 정립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또한 처음으로 일본 전국 규모의 '일본 한국어교육학회'를 설립하였고 매년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어 교육 발전에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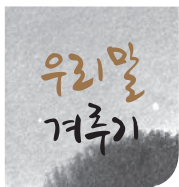
**문화포장 고토브 에르테네차메그**  
몽골 국립 대학교 교수

1995년부터 23년간 몽골 국립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학 기초를 구축하고, 한몽 사전 발간, 한국 역사서 편찬 참여 등 한글 발전에 기여하였다.



**문화포장 변정용**  
동국대학교 과학기술대학 교수

1982년 한국형 컴퓨터 개발 연구를 시작하여 한글의 과학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남북 문자 및 언어 정보 표준화를 하는 등 한글의 정보화에 기여하였다.



**대통령단체표창 한국방송(KBS)**  
<우리말 겨루기> 프로그램 제작팀

2003년부터 15년간 한글을 소재로 퀴즈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한글 맞춤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한글 사용을 권장하여 한글 발전에 기여하였다.



**대통령단체표창**  
(재)한국어진흥재단

미국 내 한국어 진흥을 위해 중·고교 한국어 교재를 발간하였으며, 미국 정규 초·중·고교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반을 신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한국어 보급 및 발전에 기여하였다.



**국무총리단체표창 학교법인**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1994년부터 재외 동포와 현지인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으며, 현지 초등학교와 기업에 강사를 지원하여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등 한글과 한국 문화의 보급에 기여하였다.



**국무총리단체표창 김진량**  
스리랑카 캘라니아대학교 교수

스리랑카에서 처음으로 한국학 국제 학술 대회 개최, 대학 부설 한국학연구원 개설, 중등학교용 한국어 교과서를 집필·편찬하는 등 한국어 보급에 기여하였다.

## 제37회 세종문화상 수상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고 창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각 분야에서 문화 창달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세종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 한국 문화 부문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프로그램 제작팀

1989년부터 사라져 가는 무형 유산, 특히 민요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2만여 명으로부터 생생한 민요를 채록하여 30여 년간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우리 민요의 중요성과 우리말의 소중함을 전파하는 등 한국 문화 보존에 기여하였다.



### 학술 부문

박영순 고려대학교 명예 교수

국어통사론, 국어의미론, 국어화용론, 국어 은유 연구, 국어 문법 교육 분야에서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여 국어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 예술 부문

이종구 한양대학교 명예 교수

가극 <금강>, <환향녀> 및 뮤지컬, 오페라를 꾸준히 작곡하였고, 저서 <<20세기 시대정신과 현대음악>> 등을 발간하여 우리나라 음악 예술계 발전에 기여하였다.



### 국제 문화 교류 부문

(재)부산문화재단

2010년부터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9개 기관 소장 조선통신사 기록물과 일본 25개 기관 소장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공동 등재함으로써 한일 문화 교류에 기여하였다.

## 한글 할아버지, 오래 오래 앉아 계세요!

2018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는 남북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참여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여자 농구 남북 단일팀은 은메달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며 많은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북 단일팀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훈련 말고도 또 다른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자 농구 남북 단일팀은 2018년 8월 1일에 처음 만나 첫 훈련을 하며 생각하지 못한 벽에 마주쳤다고 합니다. 바로 ‘농구 용어’의 차이였습니다. 빠른 호흡과 협력이 중요한 스포츠에서 의사소통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일팀은 낮에는 농구 훈련을, 저녁에는 서로의 언어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진 덕에 합동 훈련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은메달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이룬 것은 아닐까 합니다.

남과 북은 70여년이라는 분단의 세월을 겪으며 교류가 차단된 채 각자 지내 왔습니다. 그렇기에 언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언어 표현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볼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만년필 치고는 **가격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운전하기가 **바쁘**지는 않으세요?”

“선물해 주신 만년필은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아, 꼭 그렇지는 않은데…….”

운전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인가?  
나랑 얘기하기 싫은가?





『남에서는 이런 말, 북에서는 저런 뜻』(국립국어원, 2018) 참조.

웃고 있는 북녀와 달리 남남이는 어딘지 곤란해 보입니다. 지켜보는 우리는 재밌지만 남남이는 아닌 것 같네요. 남남이가 오해한 표현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북녀가 말한 ‘가격이 높다’라는 말은 ‘가격이 싸다’라는 뜻입니다. 또 ‘바쁘다’라는 말은 북한에서 ‘거름이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힘들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북녀는 남남이가 운전하느라 피곤하지는 않을까 걱정한 것이지만, 이를 오해한 남남이는 울상을 지을 법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낙지’는 북한에서 ‘오징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낙지 순대’를 기대한 남남이가 ‘오징어 순대’를 보고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군요. 아, 그럼 남한에서 일컫는 ‘낙지’는 북한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신가요? 낙지를 북한에서는 ‘서해낙지’라고 부릅니다. 남한의 ‘낙지’와 ‘오징어’는 북한에서는 우리와 같은 뜻으로 통하지 않는 것이지요. 더 많은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가 궁금하다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남에서는 이런 말, 북에서는 저런 뜻』(국립국어원, 2018)을 찾아보세요.

남남이와 북녀의 이야기를 보고 북한 말이 어떻게 느껴졌나요? 낯설고 어렵다는 생각만 드셨나요? 혹시 친근하게 느끼거나 더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표현만 조금 다른 우리말처럼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국립국어원의 『남북 언어의 식 조사 보고서』(2016)를 보면 한국인의 75.8%가 ‘북한 말을 외국어가 아닌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 생각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의 77.7%가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과 북한 이탈 주민 모두 정치, 경제, 문화, 언어 중 남한과 북한 사회에서 가장 차이가 나지 않는 분야로 ‘언어’를 꼽았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서로의 말에서 이질감보다는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0년이라는 분단의 세월이 지났지만 남한 말과 북한 말은 크게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고민해 보자면, 같은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모두 한글(북한에서는 조선글 또는 조선글자라 일컫습니다.)을 사용합니다. 같은 문자를 공유하고 있기에 세세한 어휘 등에서는 차이가 나더라도 큰 틀에서는 비슷한 점이 더 많은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소중한 한글이 긴 분단의 세월 속에서도 남북의 언어가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고 있었던 셈이죠.

북한 이탈 주민 이야기  
북한 이탈 주민 대학생 김수아(가명)

**질문 1** 북한에서도 한글이라는 문자 이름을 알았나요? 북한의 말글살이와 남한의 말글살이가 어떻게 다른지 교육받는 과정이 있나요?

‘한글’이라는 명칭은 남한에 와서 알게 되었어요. 북한에서는 ‘한글’을 ‘조선글’이라고 해요. 북한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남한의 언어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남북의 어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질문 2** 북한에서 조선어(한국어), 조선글자(한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긍심 · 자랑스러움 등을 느끼나요?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역사 시간에 잠시 배웠던 기억이 나요. 교과서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정도로만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한에서 한글날을 크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글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한글,  
세상을 품다



『남에서는 이런 말, 북에서는 저런 뜻』(국립국어원, 2018) 집필자 이야기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강보선



**질문 1** 남북 언어를 연구하신 배경이 있을까요?

대학생 때부터 통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척 설렸습니다. 국어교육을 공부하면서 성공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그래서 남북 언어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질문 2** 건국 이래 남북 관계가 가장 온화한 때라고 합니다.

『남에서는 이런 말, 북에서는 저런 뜻』을 펴내신 감회가 궁금합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북한 말을 접할 기회가 점점 많아질 텐데, 이 소책자가 북한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북한 전문가들이 함께 집필하여 남북 주민이 같이 볼 수 있는 책자도 나오면 좋겠어요.

**질문 3** 남북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북한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북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송과 여러 매체를 통해 북한 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남북 언어 차이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남에서는 이런 말, 북에서는 저런 뜻』(국립국어원, 2018)을 보면 재미있는 인사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래 오래 앉아 계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북한에서 장수를 기원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웃어른의 생신을 표현할 때 '생신'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생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 같이 572돌 한글날을 축하해 볼까요?

한글 할아버지, 생일을 축하합니다. 오래 오래 앉아 계십시오!

## ‘자동계단’을 이용할 때는 ‘안전 손잡이’를 꼭 잡으세요

글\_김형배(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서울 등 대도시에는 지하철이나 전철이 발달해 있어서 차가 밀리는 도로를 이용하는 대신 전철을 이용하면 제때에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어서 참 편리합니다.

『지하철 역에는 계단이 많아서 노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합니다. 다행히 역 대부분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다리가 불편하거나 나이 드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핸드레일을 잡아야 합니다. 계단을 이용할 때도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우측 보행을 해야 합니다. 이동 거리가 꽤 먼 역에는 무빙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어, 외래어, 어려운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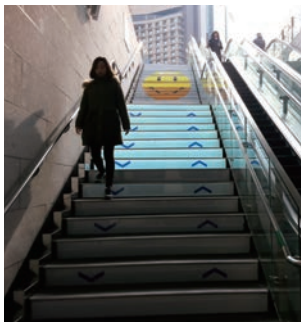
‘에스컬레이터’는 사람이나 화물이 자동으로 위아래 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든 계단 모양의 장치이므로 ‘자동계단’으로 바꿔 쓰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장치이므로 ‘승강기’로 쓰면 됩니다. 영어 elevator는 위로 올라간다는 일방향

- 에스컬레이터(escalator) → **자동계단**
- 엘리베이터(elevator) → **승강기**
- 핸드레일(handrail) → **안전 손잡이**
- 우측 보행(右側步行) → **오른쪽 걷기**
- 무빙워크(moving walk) → **자동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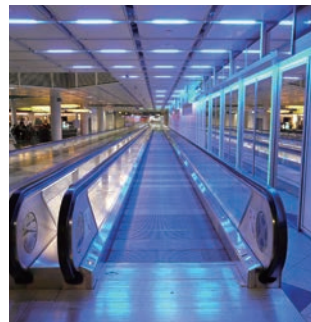
의 뜻인데 우리말의 승강기(昇降機)는 오르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쌍방향의 뜻이어서 대조적입니다. ‘핸드레일’은 계단 등에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만든 시설이므로 ‘안전 손잡이’입니다. ‘우측 보행’이라는 한자말보다는 ‘오른쪽 걷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우리말답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무빙워크’는 평지나 약간 비탈진 곳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사람이 이동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움직이는 길 모양의 기계 장치이므로 ‘자동길’로 바꿔 쓰면 됩니다.



승강기



오른쪽 걷기



자동길



『지하 통로를 걷다 보면 ‘자동 제세동기’, 그 아래에는 ‘AED’라고 써 있는 물건이 서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궁금하지만 그냥 또 지나쳐 갑니다. 조금 더 걷다 보면 이번에는 벽 쪽에 ‘SOS’라고 써 있고 그 아래에는 ‘INFORMATION’이라고 써 있는 물건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자동 제세동기’ 또는 ‘AED’는 심정지 등 응급 상황에서 심장에 충격을 주어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 기계라고 합니다. ‘자동 제세동기’나 ‘AED’라고 써 있어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쓰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고쳐서 표기한 기계도 눈에 띄어서 다행입니다. ‘SOS’가 국제적인 표기라고는 하지만 못 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한글로 ‘구조 요청’이라고 써 놓아야 급할 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INFORMATION’은 외국인을 위한 표기인가 봅니다. 외국인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한글로 ‘안내’라고 표기해야 마땅합니다.

- 자동 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AED) → **자동 심장 충격기**
- SOS → **구조 요청, 조난 신호**
- INFORMATION → **안내**

이제 위 상황은 다음과 같은 말로 바꿔 써 봅시다.

지하철 역에는 계단이 많아서 노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합니다. 다행히 역 대부분에는 **자동계단**(←에스컬레이터)이 설치되어 있고, 다리가 불편하거나 나이 드신 분들은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계단에서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 손잡이**(←핸드레일)를 잡아야 합니다. 계단을 이용할 때도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오른쪽 걷기**(←우측 보행)를 해야 합니다. 이동 거리가 꽤 먼 역에는 **자동길**(←무빙워크)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하 통로를 걷다 보면 **자동 심장 충격기**(←자동 제세동기/AED)라고 써 있는 물건이 서 있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면 이번에는 벽 쪽에 **구조 요청**(←SOS)이라고 써 있고 그 아래에는 **안내**(←INFORMATION)라고 써 있는 물건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수없이 많은 외국어, 외래어, 낯설고 어려운 말 속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쉬운 우리말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온전하고 자유롭게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물론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 빈대떡 신사는 누구인가?

글\_한성우(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  
돈 없으면 대폿집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한 톨 없는 건달이 요릿집이 무어나, 기생집이 무어나  
한복남, <빈대떡 신사>  
”

음식 이름이 노랫말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1940년대에 만들어진 이 노래에는 ‘빈대떡’이란 음식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지만 사실 빈대떡을 찬양하는 노래는 아니다. 노래에서 빈대떡은 돈 없는 사람들이 대폿집에 가서 시켜 먹는 싸구려 안주로 그려지고 있다. 그래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노래 덕에 빈대떡이 더 알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노래에 등장하는 ‘빈대떡 신사’가 시인 백석이라는 설이 있다. 일제 강점기의 시인들에 대한 통념에 기대면 그럴 듯해 보이기도 한다. 주머니는 비어 있지만 머리와 가슴만은 부유한 이들이니 요릿집이나 기생집을 기웃거리는 시인들의 모습이 상상이 된다. 게다가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인 ‘양복쟁이’가 시인 백석이니 앞뒤가 맞을 것도 같다.



사진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그러나 백석의 외모를 아는 이, 백석의 당시 인기를 아는 이는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설이다. 사진으로 남아 있는 백석의 이목구비나 머리 모양은 지금 당장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미남의 시인이자 영어 선생님이었으니 당시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가늠이 된다. 돈이 없더라도 요릿집이나 기생집에서 서로 모시려고 하는 모습은 상상이 되지만 문전 박대를 당하는 장면은 그려지지 않는다. 양복을 차려 입은 백석의 멋진 모습을 보고 그저 겉모습만 따라 하는 ‘건달’이 바로 이 노래에 나오는 ‘빈대떡 신사’라는 설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시인 백석이 ‘빈대떡 신사’인 양 잘못 알려지는 것 못지않게 ‘빈대떡’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진 것이 많다. 빈대떡은 녹두를 갈아 몇 가지 소와 버무린 뒤 지져 내거나 부쳐 내는 음식이다. 그 맛이 모두가 동의를 하지만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떡이 아닌데 떡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문제가 된다. 곡물의 가루를 내어 찐 것이 아니라 물계 반죽을 해서 지져 냈는데 떡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 ‘떡’ 앞에 붙은 ‘빈대’도 정체를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의 피를 빠는 ‘빈대’일 리는 없으니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옛 문헌을 보면 이 음식을 한자로 ‘餠餠’로 쓰고 한글로는 ‘빙자’로 써 놓은 것이 보인다. ‘餠(떡 빙)’은 떡을 뜻하지만 우리 한자음으로는 ‘빙’이고 중국어 발음으로는 ‘빙’이다. 그러니 기록대로라면 이 음식과 이름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중국에서 ‘빙자’라 부르는 음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빈대떡이 됐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어에서 유래한 ‘빙자’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 본래 ‘餠’이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떡’을 덧붙인 것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그러나 ‘자’가 ‘대’가 되는 일은 설명이 어려운 변화다.

이런 이유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만든 ‘빈자(貧者)떡’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제기된다. 그러나 그리 흔하지 않은 곡물인 녹두를 정성스럽게 갈아 갖가지 소를 넣은 뒤 기름에 지져 내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이 음식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에는 돈이나 품이 너무 많이 들어 보인다. 게다가 ‘빈자’가 이전의 표기 ‘빙자’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빈대’가 되는 변화는 있을 수 없다. 덕수궁 뒤에 ‘빈대골’이 있었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부침개 장사를 많이 했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명도 보인다. 이 설을 증명하려면 ‘빈대골’의 존재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빈대떡을 만들어 팔았다는 증거도 있어야 하는데 가능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모두 개연성이 떨어지는, 그저 ‘이야기’일 뿐이다.

노래 〈빈대떡 신사〉에 시인 백석을 끌어들이는 것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사람을 속이는 일이 되기도 한다. 어원에 대한 설명 중 많은 것들이 이러한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어떻게든 한자나 역사적 사건과 연결시키려는 무리한 시도가 많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재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멋쟁이 백석을 무전취식하는 건달로 만든다. 누가 처음 빈대떡을 만들었는지 모르듯이 누가 처음 ‘빈대떡’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말은 그렇게 생겨나서 그렇게 사라진다.



## ‘우레매’가 될 뻔한 ‘우뢰매’

1986년 개봉한 《외계에서 온 우뢰매》는 8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세대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영화이다.

영화는 당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던 개그맨 심형래를 전면에 내세웠다. 심형래 특유의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를 그대로 따서 만든 인물 ‘형래’가 영화의 주인공이다. 형래는 외계에서 온 우주인으로부터 초능력을 얻어 정의로운 영웅인 ‘에스퍼맨’이 되고, 변신 로봇 ‘우뢰매’와 함께 지구를 지킨다.



《외계에서 온 우뢰매》 공식 포스터



《외계에서 온 우뢰매2》 공식 포스터

영화 《외계에서 온 우뢰매》는 심형래의 유명세와 함께 바보가 영웅으로 변하는 독특한 설정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뿐만 아니라 상영관에서 어린이 입장객에게 예쁜 책받침을 선물하는, 당시로는 신선한 홍보 방식을 내세웠고, 완구업체와 합작해 우뢰매 장난감을 발매해, 아이들을 ‘우뢰매’에 더욱 열광하게 했다. 200만 관객을 끌어모은 1편의 성공에 힘입어 ‘우뢰매 시리즈’는 이후 1993년에 개봉한 9편 《무적의 파이터 우뢰매》까지 8년 동안 총 9편이 제작되었다.



시리즈의 제목이자 형래가 조종하는 변신 로봇의 이름인 ‘우뢰매’는 상황에 따라 사람의 모습과 매의 모습으로 변하여 변신한다. 이때 ‘우뢰매’라는 이름은 매의 모습과 전기를 다루는 ‘에스퍼맨’의 특징을 버무려 지은 이름으로 볼 수 있다. 이르지면 ‘전기를 다루며 천둥같이 빠르고 강한 매’ 정도의 뜻으로, ‘우뢰’와 ‘매’가 합쳐진 말이라고 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천둥’을 뜻하는 말은 ‘우뢰’가 아니라, ‘우레’다. 그렇다면 영화 ‘우뢰매’의 제목은 어째서 ‘우레매’가 아닐까?

현행 표준어 규정 제26항에는 ‘우레’를 ‘천둥’과 함께 복수 표준어로 규정하고, ‘우레’를 표준어로 삼은 이유가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다.

“

‘우레/천둥’의 ‘우레’는 본래가 ‘울다’의 어간 ‘울-’에 접미사 ‘-에’가 붙어서 된 말이었는데,

어느 결에 한자어식 표기로 바뀌어 ‘우뢰(雨雷)’라 쓰여 왔던 것이다.

이번 규정에서는 고어에도 ‘우레’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여 ‘우레’로 되돌려 처리한 것이다.

”

이러한 표준어 규정 개정은 1988년에 이루어졌다. 그보다 조금 전인 1986년에 개봉한 영화 《외계에서 온 우뢰매》에서 ‘우뢰매’가 당시에는 잘못된 표기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표준어 규정이 개정된 1988년 이후 개봉한 후속작들에서도 ‘우뢰매’라는 이름은 고집되었다. 아마 ‘우뢰매’라는 이름으로 이미 유명해진 영화의 제목과 로봇 이



름을 ‘우레매’로 수정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랐기에 기존의 이름을 고수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우레’는 많은 사람들이 표기를 헛갈려 하는 어휘들 중 하나다. 많은 사람이 치는 매우 큰 소리의 박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우레(와)’ 같은 박수에서도 ‘우레’를 ‘우뢰’로 잘못 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영화 《우뢰매》와 관련된 일화와 함께 올바른 표기를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2018 국어 정책 국제 학술 대회 ‘보이는 언어의 기록, 수어 사전’ 개최

국립국어원은 올해 11월 8일에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삼성교육문화관(언어교육원)에서 ‘보이는 언어의 기록, 수어 사전’을 주제로 국어 정책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수어 사전을 편찬하거나 편찬 중에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수어 사전 전문가를 초청하여 수어 사전의 구조와 편찬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예정이다. 학술 대회의 모든 발표는 한국어, 한국 수어, 영어, 국제 수어로 통역을 제공한다.

국립국어원은 기존에 구축된 수어 사전을 정비하여 농인(聾人)과 청인(聽人)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어 사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학술 대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간 한국어 수어 사전의 모습을 전망하고 농사회의 발전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사전 등록과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참가 제한은 없다.

**대회명** 2018년 국어 정책 국제 학술 대회  
- 보이는 언어의 기록, 수어 사전

**일 시** 2018. 11. 8. 10:00~17:00

**장 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삼성교육문화관(언어교육원) 메인홀

### 발표 내용과 일정

구분	발표자	내용
기조연설	글래디스 탕(홍콩)	수어 사전 편찬의 역사
발표①	예트 크리스토퍼슨(덴마크)	수어 사전의 구조
발표②	요한나 메시(스웨덴)	수어 사전의 표제어 표기
발표③	트레버 존스턴(호주)	수어 말뭉치 중심의 수어 사전
발표④	최혜원, 이현화(한국)	한국 수어 사전의 현황과 발전 전망
발표⑤	토마스 항케(독일)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어 사전의 미래



2016 국제 학술 대회 - 수화언어와 사회적 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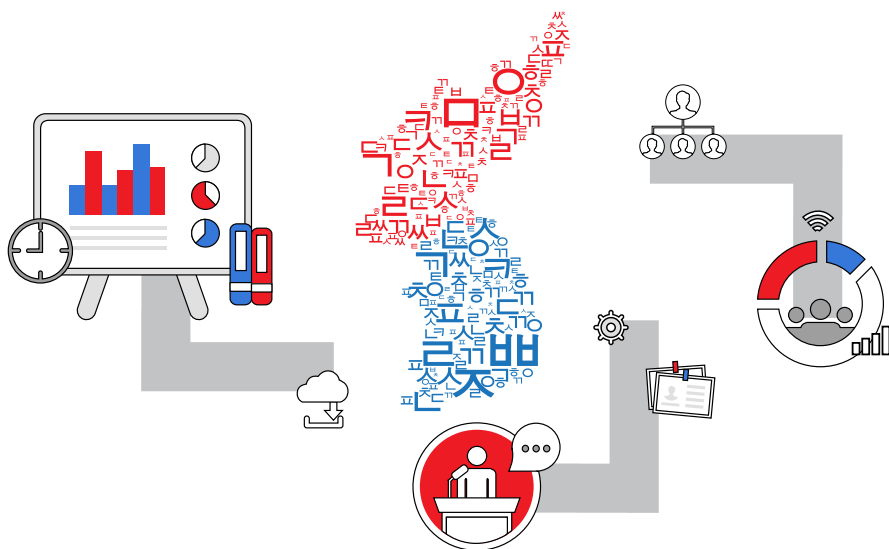
## 제15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국립국어원이 주최하는 '제15차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가 10월 26일에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분야별 남북 전문용어 통합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어뿐만 아니라 법률, 의학·간호학,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해 온 남북 전문용어 비교 및 통합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현황과 과제를 살펴본다.

발표 내용과 일정

구분	발표자	내용
기조연설	권재일 (한글학회)	남북 소통을 위한 전문용어 연구의 필요성
발표①	신종진 (한양대학교)	국어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발표②	정성희 (중국민족어문번역국)	중국조선어 번역에서의 남북 전문용어 문제
발표③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법률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발표④	김영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의학·간호학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발표⑤	송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건설 분야의 남북 전문용어 연구 현황과 과제



## <국어사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

### 1 사전에 있는 정보는 모두 규범일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 국수<sup>이</sup>

활용 정보:

「명사」 「방언」

‘국수<sup>이</sup>」 「1」의 방언(강원, 경상, 전남, 함경).

#### 초콜렛

활용 정보:

「명사」

→ 초콜릿.

‘초콜렛’이 사전 표제어로 실려 있지만, 이것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형태입니다.

규범에 맞는 표기를 알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속에 규범 정보가 많기는 하지만, 규범이 아닌 정보도 사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수<sup>이</sup>→국수’, ‘초콜렛→초콜릿’과 같이 방언이나 비표준어를 넣기도 하는데, 이것은 사전 이용자에게 규범이 아닌 형태라 하더라도 규범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 주기 위한 것입니다.

### 2 사전에는 점잖은 말만 실려 있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이마<sup>ㅸ</sup>

활용 정보: [이마<sup>ㅸ</sup>만[—뽕—]]

「명사」 「방언」

‘이마<sup>ㅸ</sup>」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

【<니마ㅸ박 <역해> ← 니말 + ㅸㅸ + 박】

#### 개<sup>ㅸ</sup>품

활용 정보:

「명사」

본인은 멋있다고 생각하나, 일반적으로 못나다고 생각되는 자세를 낮잡아 이르는 말. ≒똥품.

『간달 하나가 문 앞에서 한 다리를 들었다 뚫다 하며 개품을 잡고 건들거렸다.』

보통 사전에는 공식적이고 점잖은 말만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은 우리 말글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낮춰 부르는 말’이나, ‘비속하게 이르는 말’ 역시 우리말의 한 부분이므로, 적은 수이지만 사전에 이와 같은 표현들이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써 주세요!

### 3 사전에 들어 있는 대상은 모두 ‘단어’일까요?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누구를爲하여鐘은울리나)

분야 「문학」

『001』 미국의 작가 헤밍웨이가 지은 장편 소설.(이하 생략)

#### 백조의 호수 (白鳥의湖水)

분야 「음악」

『001』 1876년에 차이콥스키가 작곡한 4막의 발레 모음곡.  
(이하 생략)

기본적으로 사전에는 ‘단어’가 실립니다. 하지만 사전에 있는 전문어 중에서는 단어라기보다는 ‘구(句, phrase)’에 가까운 대상이 많고, 특히 한 단위로 볼 수 있는 작품 이름, 제목 등도 실려 있습니다.

#### 4 사전에 없는 단어는 모두 띄어 써야 할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참기름-병 (참기름瓶)

발음 [참기름병]  
품사 「명사」

들기름병은?

「001」 참기름을 담아놓고 쓰는 병

##### 불고기-덮밥

발음 [불고기덮밥]  
활용 불고기[덮밥]만 [불고기[덮밥]만]  
품사 「명사」

돈가스덮밥은?

「001」 살코기를 저며 양념하여 재었다가 불에 구운 다음, 밥 위에 얹어 먹는 음식

‘들기름병’, ‘돈가스덮밥’은 사전에 실려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 띄어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띄어쓰기를 알아보기 위해 국어사전을 찾았는데 찾는 말이 사전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는 말이 사전에 있다면 붙여 쓰겠지만 없을 경우에는 모두 띄어 써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는 우리말의 모든 단어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많이 쓰이는 말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의 경우 일부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참기름병’은 사전에 있지만 ‘들기름병’은 사전에 없습니다. 하지만 ‘들기름병’이 사전에 없다고 하여 반드시 띄어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5 사전에 없는 단어는 비표준어일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 실-몽당이 [실 : —]

← 기존 표준어

「명사」

실을 풀기 좋게 공 모양으로 감은 몽치

##### 까다-롭다 [까 : —따] (까다로워[까 : —], 까다로우니까 [까 : —])

「형용사」

← 기존 표준어

「1」 조건 따위가 복잡하거나 엄격하여 다루기에 순탄하지 않다.

##### 실-몽치 [실 : —]

← 새로 추가된 표준어

「명사」

실을 한데 몽치거나 감은 덩이

##### 까탈-스럽다 [—따] (스러워, 스러우니)

「형용사」

← 새로 추가된 표준어

「1」 조건, 규정 따위가 복잡하고 엄격하여 적응하거나 적용하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가탈스럽다’ 「1」보다 센 느낌을 준다. (이하 생략)

기존에는 ‘실몽당이/까다롭다’만 표준어였지만, 2016년 국어심의회를 거쳐 기존의 비표준어였던 ‘실몽치/까탈스럽다’도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실리지 않았던 비표준어도 오랜 시간 그 단어의 쓰임을 살펴본 뒤 표준어로 인정받아 사전에 등재되기도 합니다.

사전에는 우리말의 모든 단어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새로 생긴 단어의 경우, 널리 쓰이고 있지만 아직 사전에 오르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 사전에 없다고 무조건 비표준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표준어가 아니었지만 새롭게 많이 쓰이게 되면서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사전에 등재되기도 합니다. ‘이 말이 표준어일까?’를 사전 등재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 한국어 교육의 미래, 예비 교원을 위한 국외 실습 지원

국립국어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들의 현장 실습 지원을 위해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양질의 한국어 교육 전파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수한 한국어 교원 양성이다. 이에 한국어교원자격 제도를 관리하는 국립국어원은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을 앞둔 예비 교원들의 현장 실습을 지원하여, 한국어를 바르게 알리는 데에 핵심 동력이 될 우수한 한국어 선생님을 양성하고자 한다.

올해 실습지로 선정된 국외 지역은 일본 도쿄, 오사카, 러시아 사할린,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총 네 곳이다. 실습 기간은 한 달(알마티 7월 단기 한국어 교실 실습은 3주)이며, 현지 한국어 수업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일본은 7월과 10월, 러시아 사할린과 카자흐스탄 알마티는 9월과 10월에 실습이 이루어진다. 이미 7월과 9월에 34명의 예비 교원들이 현장 실습을 무사히 마쳤고, 10월 현재 27명이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 모집은 4월 27일까지 진행하였고, 접수 마감일까지 전국 112명의 예비 교원들이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선발 절차(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및 모의 수업 전형)에 따라 1차 전형 통과자 88명을 대상으로 5월 16일

부터 2차 전형을 실시하였고, 실습 참가 대상자 67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실습 참가자 대상자들은 실습지별로 6월과 8월에 현장 실습을 위한 사전 연수를 받았다. 이 사전 연수에서 참가 대상자들은 현장 실습과 관련한 기초 지식, 현지 사정에 특화된 수업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 교육 결과를 반영하여 국립국어원은 과정을 완수한 61명을 최종 실습 지원자로 선정하였다.

현지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실습 참가자들은 한 달 동안 실제적인 수업 능력을 기르기 위해 주로 수업 참관과 모의 수업을 병행하는데, 실습 능력 향상을 위해 함께 파견된 우수한 경력 교원들의 지도를 받게 된다. 또한 예비 교원들은 재외 동포 교육기관에서 한국어·한국 문화 수업 경험뿐만 아니라 현지 동포들과의 교육·문화 교류를 통해 국외 한국어 교육 현장에 대한 소중한 체험을 하게 된다.

예비 교원들이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지원'을 통해 경험한 수업 현장의 시간들은 우수한 한국어 교원이 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처럼 국외 한국어 교육 현장의 토대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어 선생님 양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어 예비 교원 국외 실습 지원’ 사전 연수



##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자료 3종, 기대해 주세요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교원 자격 관리,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한국어 교육 기초 연구, 교육 자료 개발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 왔다. 특히 2018년에는 학습자 대상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자료 3종을 세상에 내놓기 위하여 개발에 힘쓰고 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새 교육 자료는 각각 다문화 가정 성인, 학령기 학생, 재외 동포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연말에 빛을 보게 된다.

먼저 다문화 가정 성인 대상 교재는 지난 2009년 ~2013년에 출판한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를 전면 개정하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기존의 교재는 개발 당시의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 결혼 이민자를 학습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일상생활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었다. 이번에 개정될 교재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학습 대상자를 다문화 가정 남녀 성인 구성원 전체로 넓히고, 양성평등 가치관을 적극 반영하면서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진취적인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담아낸다. 구성 면에서는 기존 교재에 빠져 있던 익힘책을 추가해 학습자의 자가 학습과 보충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정규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학습자들도 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지침을 지도서에 실는다.

다음으로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재는 한국어교육과정의 개정·고시(교육부 고시 제2017-131·132호, '17.9.29.)에 따라 펴내는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17년에 교육과정 개정 내용을 교재에 구현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초·중·고등학교

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이 교재는 의사소통 한국어와 학습 도구 한국어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응용이 자유로운 모듈식 교수 학습 모형을 도입한다. 2018년 개발·집필이 완료된 교재는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2019. 3. 1.)에 맞춰 2019년 상반기부터 전국의 다문화 예비 학교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재외 동포 유아 대상 교육 자료는 미취학 재외 동포 유아(만 3~6세)의 이중 언어 능력을 높이고 건강한 정체성을 길러 주기 위해 개발하고 있다. 재외 동포 유아는 보통 만 3세 이전에 한글 학교에 입학하지만, 그간 이들을 위해 국가 주도로 개발한 한국어 교육 자료는 없는 실정이어서 현장에서 교육 자료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번 교육 자료는 2017년에 진행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개발 중이며, 색깔·모양·동물·가족과 친구 등 유아들이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주제에서부터 한글 학교·옛날이야기·명절 등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주제까지 다양한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교육 자료는 유아들이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듈식 활동지 형태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교사와 부모가 참고할 수 있는 지도서, 벽에 붙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벽붙이 자료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국립국어원은 새 교육 자료 3종이 한국어 학습자와 교사의 목마름을 적셔 줄 단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유용한 대상별 맞춤 교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어디서나 만나는 점자, 점자로 넓어지는 한국어

시각 장애인은 여섯 개의 점으로 세상을 읽는다. 여섯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글자 '점자'. 여섯 개의 점이 모여 수학 기호도 되고 음악의 악보도 되며 복잡한 전기 회로가 되기도 한다.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는 세상과 소통하는 눈이자 세상의 정보를 습득하는 도구이다.

현재 한국어를 표기하는 한글 점자는 제생원 맹아부 교사였던 송암 박두성 선생이 1926년 11월 4일 '훈맹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훈맹정음이 반포된 지 90년이 지난 2016년 5월 29일 「점자법」이 제정되고 2017년 5월 30일에 시행되었다. 「점자법」은 점자와 점자 문화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 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점자법」 제정으로 점자는 시각 장애인의 공식 문자로,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공인된 문자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점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 중이다.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은 점자 연구와 교육의 질을 높여 점자의 보급과 확산을 도모하고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시각 장애인의 문자 생활에 제약이 없는 언어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점자법」 제정으로 점자가 공식 문자로 인정되기는 했지만 시각 장애인들이 점자로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점자 표기가 의무 규정이 아닌 탓에 의약품이나 음료수 등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생활용품에 점자 표기가 없어 시각 장애인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점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재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점자를 가르칠 교원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취약한 형편이다. 디지털 음성 도서나 음성 지원 스마트 텔레비전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향상되고 있는 것은 하나 여전히 점자 사용 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시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점자 사용 환경을 분석하여 점자의 사용과 보급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들을 3대 추진 과제와 각각의 세부 과제로 나누어 기본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점자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점자 규범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점자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당사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용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한다.

또한 점자 사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점자 교육 자료 개발, 교과용 도서의 점자 제작 및 보급, 남북 점자 연구 등 점자 교육과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점자 출판 시설을 지원하고 정보화 기반 점자 자료 보급을 활성화하며 점자 홍보와 점자 문화 확산 등 점자 사용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것 역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이다.

국립국어원은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에 발맞춰 점자로 소통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언어 환경을 조성하며 시각 장애인의 문자 향유권을 높여 점자가 세상을 잇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진 출처: 국립장애인도서관

## 쉽고 바른 공공언어, 함께 노력요

국립국어원은 ‘공공언어 통합 지원’ 누리집(www.korean.go.kr/publang)에서 행정 용어, 정책명, 보도자료, 안내문, 법령, 조례, 지침서 등의 공공언어 사용과 관련된 문의에 대해 상시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어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으로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언어 통합 지원’ 누리집은 ‘공공언어 감수’, ‘공공용어 번역’, ‘우리말 다듬기’라는 세 개의 하위 누리집이 통합되어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공공언어는 ‘공공 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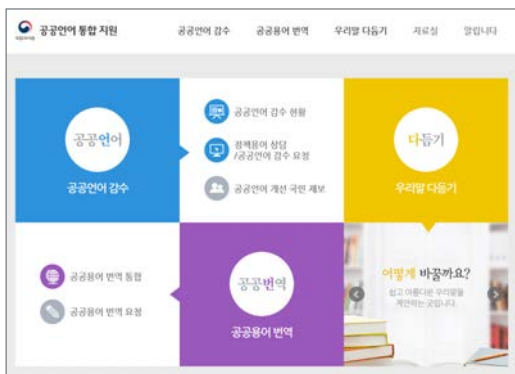
‘공공언어 감수’ 누리집에서는 중앙 행정 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 기관 등의 직원이 기관의 각종 안내 책자, 안내판, 민원 서식 등의 문장이나 낱말의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어려운 외국어·한자어 정책용어(정책명, 사업명, 제도명)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행정 기관이나 공공 기관에서 쓰는 공공언어 가운데 어렵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어나 표현을 발견하면 ‘공공언어 개선 국민제보’에서 제보할 수 있다.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는 어려운 행정용어나 언론

에서 나타나는 외래어 등을 알기 쉽게 다듬어 놓은 말(순화어)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우리말 다듬기’는 우리 언어 공동체 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낯선 외래어와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일을 말한다. 국립국어원은 우리말 다듬기를 2004년부터 국민과 함께 해오고 있다.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말들은 ‘다듬고 싶은 말’ 게시판에서 제안할 수 있고, 다듬은 말 공모전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어떻게 바꿀까요?’에서 다듬은 말 후보를 제안할 수 있으며, 확정되어 다듬어진 말들은 ‘이렇게 바꿨어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밑듯이 밀려드는 낯설고 어려운 외국어를 대신하여 우리말로 우리 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길에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평소 생활하다가 또는 뉴스를 보고 듣다가 다듬고 싶은 말이 보이면 ‘다듬고 싶은 말’ 게시판에 제안할 수 있다.

‘공공용어 번역’ 누리집을 방문하면,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를 바르게 알리는 데 필수적인 공공 분야 문화 용어(지명, 도로명, 한식명 등)에 대한 표준 번역(한국어를 영·중·일어로 번역)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공공 기관의 경우 자체 번역안에 대한 감수 요청도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은 2013년부터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공용어 번역 통합 정보’에서는 국립국어원의 번역 감수를 완료한 한식명의 표준 번역 인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한 음식명, 지명 등의 번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통합 지원’ 누리집에 국민들이 자주 방문하여 주변에도 널리 알려 주기를 바란다. 국립국어원은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언어를 쉽고 바르게 사용하도록 공공 기관을 지원하며, 일반 국민이 공공언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공공언어 통합 지원’ 누리집

## 국립국어원과 함께 떠나는 우리말 여행 우리말 꿈터 및 꿈터 연계 프로그램 안내

국립국어원은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말 체험 공간인 <우리말 꿈터(이하 꿈터, 2016년 10월 개관)>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꿈터에서 다양한 주제로 우리말에 관한 체험을 하면서 바른 우리말을 배우고, 왜 바르고 고운 말을 써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꿈터에서는 국어사전을 활용해 십자말 풀이를 해 보고, 나만의 뜻풀이도 해 볼 수 있다. 그림에서 속담을 유추하며 선인들이 살았던 과거로 우리말 여행을 떠나 보고, 지역 방언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다양한 지역으로 우리말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틀리는 높임말과 인사말들을 바르게 고쳐 보고, 인터넷에 응원하는 댓글을 달면서 언어 예절을 배울 수 있다. 꿈터 체험 활동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은 ‘띄어쓰기 뛰어 보기’이다. 화면에 문장이 지나갈 때 띄어쓰기가 필요한 곳에서 직접 뛰어 보며 띄어쓰기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다.

국어원에서는 꿈터로 ‘찾아오는’ 우리말 꿈터 체험뿐 아니라 꿈터 연계 과정인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은 언어 인성(함께 가꾸는 우리말)과 언어문화 개선(함께 가꾸는 말씨와 마음씨)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또래 간 갈등 해소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함께 가꾸는 우리 사이)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1일 학예연구사가 되어 보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함께 가꾸는 우리 꿈)이 있어서 평소 국어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 밖에 명사를 초청해 문화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는데, 올해 3월에는 ‘치유와 성장을 위한 부모의 말 공부’를 주제로 이임숙 소장(‘엄마의 말 공부’ 저자)이 강연을 펼쳐 지역 주민 및 부모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 방화초6, 김창빈

“지역 방언으로 노래하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평소에 부르던 노래를 지역 방언으로 부르니까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정말 재미있었고, 또 오고 싶어요.”

### 수명초5, 임석진

“직접 몸으로 띄어쓰기 공부를 하니가, 제가 띄어쓰기를 잘 못했었는데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말  
꿈터  
체험 신청  
안내

**대 상** | 청소년(고학년 초등학생, 중학생)  
**운영 시간** | 평일 오전 9시 30분, 오후 1시 30분(하루 2회, 각 120분)  
**신청 방법** | 온라인 국어문화학교(edu.korean.go.kr), 전화 02-2669-9686, 9687  
**참 가 비** | 무료



우리말 꿈터 체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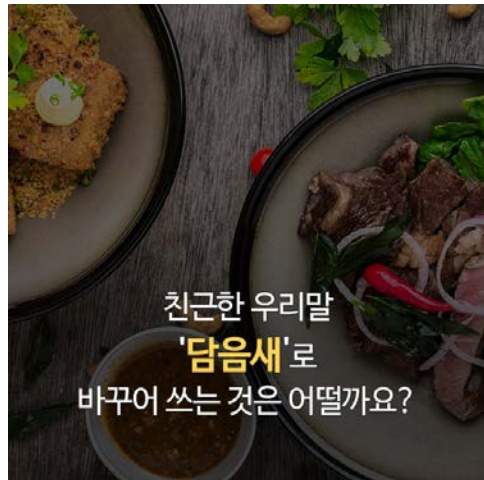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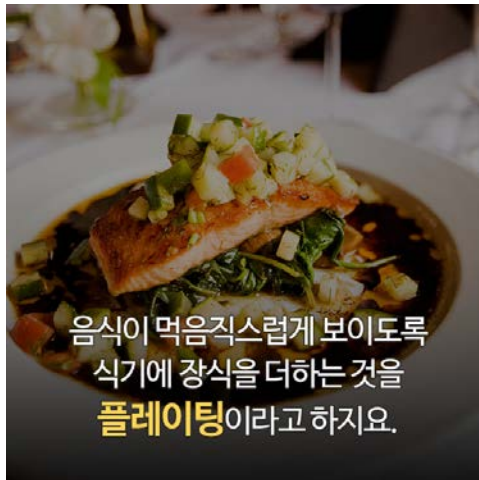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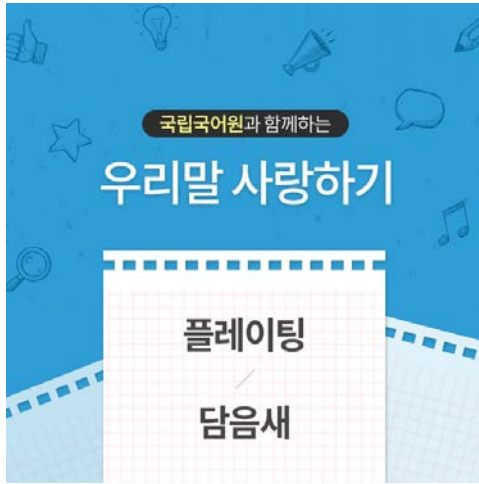
꿈터 문화 강연 - 치유와 성장을 위한 부모의 말 공부



우리말 꿈터

개관 이후 꿈터에는 4,461명이 다녀갔으며,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언어 인성, 언어문화 개선)은 2,297명이, 진로 체험은 651명이 참여했다(2018년 6월 기준). 지난해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한 학교 가운데 올해 다시 체험을 신청한 학교가 다수이고, 만족도도 96.7%로 높다.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꿈터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많은 청소년이 우리말 여행을 함께 떠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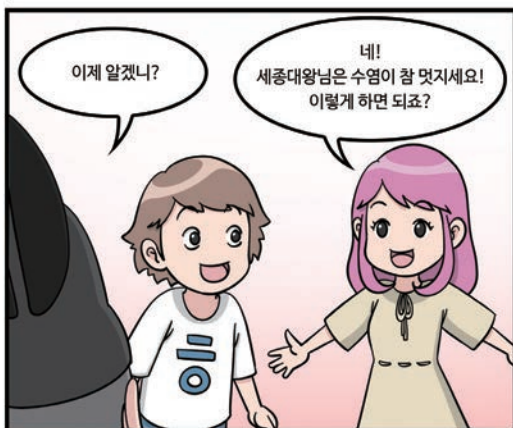




## 수염이 멋지신 세종대왕님







## II

## 최우수상 서세정



이 간행물은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의 한글날 특별 한정판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이 간행물의 저작권과 초상권은 국립국어원에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